"늘봄학교 전면 도입 앞장서서 추진"

김관영 도지사,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교육청 · 대학 거버넌스 활용 교육협력추진단 구성 등 언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시도교육감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7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과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 교육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기관 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는 매일 2시간 이상 무료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의 늘봄 협의체와 늘봄 거점센터를 통해 실제로 더 많은 학교가 늘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녁 6시까지는 학교 내에서, 저녁 8시까지는 학교 밖에서 지역의 211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아울러, 늘봄 거버넌스와 관련해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교와 교육청, 시군 등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특히, 수혜자들의 반응이 좋은 초등 돌봄교실에 지방비 10억 규모의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논의된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 △교육재정 합리화, △기준인건비 개선방안,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지방의회 조직권 개선 등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시도·시군구·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선거구 대개악 결사 반대" 윤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9명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22대 총선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도입"

새미래, 포용사회 정책 1호 발표… 다양한 가족 형대 인정 골자

소방 ·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조종묵 전 소방청장 등 영입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이하 새미래)'가 포용사회 정책 1호로 '돌봄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발표했다.

김만흠 새미래 정책위원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새미래가 발표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인정·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을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 및 장례휴가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대에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미래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새미래는 유튜브 '새로운미래가 온다'를 통해 국방 분야 정책 1호로 '한국형 모병제'를 제안했다.

미래의 병력 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한국형 모병제는 장기 복무 전문 병사의 모병제와 현행 징집형 일반병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이다.

장기 복무 전문 병사는 12개월의 일반병으로 36개월의 부사관으로 총 48개월 복무하고, 일반병사는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방과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조종묵 전 소방청장과 김성용 전 방재문화진흥원장을 영입인재로 발탁했다.

새미래 측은 "두 인재의 영입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검찰권력 사유화 막고 전주의 긍지 되겠다"

이성윤 전 검사장, 총선 민주 전주을에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된 이성윤 예비후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주와의 인연을 강조한 이 예비후보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상처받은 전주와 전북의 자존심 회복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잼버리 실패를 뻔뻔스럽게 전북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운 윤석열 정권이 그것도 부족했던지 예산마저 대폭 깎아버려 전북도민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며 "퇴임 후 고향에서 흙을 만지며 살고자 했던 꿈을 접고 전주로 불러내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오랫동안 인간 윤석열을 지켜봤다. 또 곳곳의 요직에 퍼져있는 검찰 출신들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유능한 외과의사처럼 검찰 독재 정권의 썩은 환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며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예비후보는 "최우선으로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머리를 맞대고 전주의 발전을 견인하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상처받은 전북의 자존심을 기필코 회복해 전주의 긍지가 되겠다"고 지역 발전 약속도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비전체계 · 특례 발굴 · 법 체계화 · 부처 설득논리 등 지원

5대 목표 20대 전략 관련 중장기 방향 · 특별법 개정 전략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선언적 조문으로 통과된 직후에 전북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전부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3월에 착수돼 1년간 과업이 진행됐다.

용역을 전담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우선 과제였던 비전체계 설정부터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655건의 특례 발굴 내역, 추진 필요성, 법 체계화 내역 등을 보고했고, 최종 국회 통과된 131개 조문을 분석해 향후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설정한 5대 목표, 20대 전략에 대해서는 2040년 중장기 방향과 향후 특별법 개정 전략 등도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자치도 관련 실국의 보충의견을 반영해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제시된 2단계 특례 발굴 방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등 각종 분석 내용은 특별자치도를 성장시키는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살기 좋은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치밀한 종합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발전전략은 향후 수립 예정인 종합계획과 연계시켜 실천력을 갖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국토기본법' 근거로 20년 단위로 수립해 온 '도 종합계획'을 지난 해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과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3선 도전' 민주 안호영 의원 "무주 5대 핵심공약 중 하나"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진무장 4대특별시 중청정태권특별시 무주군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안성~적상(국도19호) 4차로 확장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에서 적상면 사산리까지 4.0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원이다. 현재 무주IC~적상 마산(7.52km) 구간 및 안성재에서 덕유산 IC 안성우회도로(5.93km) 구간은 4차로로 확장되었으나, 중간 위치의 적상 마산~안성재(4km) 구간만 2차로로 되어 있어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산~안성재 구간은 영·호남 남부지역에서 연결되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및 구천동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국도 19호선 중 미확장 구간으로 종·횡단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는 곤돌라 이용 및 겨울 스포츠 관광객들의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

안 의원은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한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 선형 개선 등 사고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역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우선 '무주 안성~적상(국도19호) 4차로 확장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추진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의대 증원 카드, 김건희 여사 악재 덮기 위한 시선돌리기"

민주 정희균 예비후보, 尹정부에 직격… "공중보건 처우 개선 등 정부 대책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윤석열 정부의 꼼수 정치에 일침을 가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는데, 어디까지나 김건희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선돌리기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 시기 공공의료문제로 의사들과 대치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자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이며 자유한국당인 소속의원들은 의사들의 편을 들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었다"라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정원 확대 문제가 공전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의료파업을 주도해온 것도 있지만 기득권 정당인 지금의 여당과 의식의 궤를 같이해온 이유가 더 크다"고 꼬집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2,000명이 어떻게 배분되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리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또한 농촌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실시,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농촌지역 의료수가 상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량, 환자의 수요, 의료공급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근거를 통한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해야 한다"라며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끝으로 "꼼수 정치는 결국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별취재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군산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7일 소회의실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원간담회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들어감에 따라 시 집행부의 현황을 청취하며 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를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이 동서로 확연히 분리되는 점을 앞으로의 관할권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동완 의원은 "해수유통 관련해서 시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담수 개념이지만 해수유통이 되어 물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뿐 아니라 김제, 부안 등 자체 용역을 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계획에 과연 반영될지 의문이다"라며 "일단 관할권 문제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이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우리 시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새만금 빅픽처가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처리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27일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9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우리군의 적극 대응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고,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가 이어진 후, 각 상임위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무주=전문선 기자